

‘군민의 발’ 영암역 개통...하루 4-5회 운행

농어촌버스·콜택시 연계 접근성 ↑
영암읍 영암역 연결 무료버스 지원
물류·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 상승



영암역이 지난 27일 목포보성선 개통과 함께 첫 영업을 개시했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에 사상 처음으로 열차역이 생기면서 목포와 보성을 오가는 영암군민과 관광객들의 발이 됐다.

30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남해안권 철도망의 핵심축인 목포보성선이 보성군 신보성역에서 개통식을 열고 정식 개통함에 따라 확산면에 위치한 영암역이 27일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목포보성선은 보성군 신보성역에서 목포 임성리역까지 82.5km를 잇는 노선으로, 열차는 평일 4회, 주말 5회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암역 신설로 그동안 철도를 이용하려던 목포나 나주 등 인근 역을 찾아가 했던 군민들은

이제 영암 내에서 바로 남해안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운행 열차는 영암역에서 신보성역까지를 45분 만에 연결하는데 열차가 없던 시절 두 구

간은 자동차로 1시간 남짓 걸리던 거리였다.

이달 22일 열차표 예매가 시작됐고 27일부터 목포보성선 탑승도 이뤄지고 있다. 군은 영암군민과 관광객을 위해 연결 대중교통을 강화했다.

열차 시간에 맞춰 영암읍과 영암역을 오가는 농어촌버스를 매일 8회씩 운영하며 콜택시도 상시 대기하도록 협조했다.

무료로 운영되는 이 버스는 월출산기찬랜드,

영암목재문화체험장, 왕인박사유적지, 영암도기박물관 등 영암의 관광 명소를 경유해 가져다줄 관광객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안내표지판에 영암역 표기를 완료해 철도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 목포보성선에 200년 보성 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남해안 고속철도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은 이번 영암역 신설이 지역 물류 활성화, 관광 접근성 제고 등 지역경제 전반에 상승 효과를 불러올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류미아 영암군 건설교통과장은 “영암역 신설에 따른 연결 대중교통 마련 등으로 영암군민과 방문객 모두 더 편리하게 영암 안팎을 오가며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며 “영암역을 뒷받침하는 각종 편의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0일 무안군청 앞에서 무안 청계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무안군 청계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제공〉

“무안 청계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취소하라”

주민 400여명 건립반대 결의대회
“환경 파괴·건강·재산권 침해” 규탄

무안군 청계면 주민들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에 나섰다.

30일 무안군 청계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군청 앞에서 주민 등 400여명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청계면은 예로부터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자랑하는 삶의 터전”이라며 “하루 5t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면 청정 환경은 파괴되고 주민 건강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청계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동양환경 사업 즉각 중단 및 청계 철수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업 승인 취소 ▲무안군의 강력한 대응과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19년 동양환경이 소각시설 규모를 하루 7t에서 216t으로 변경·허가받는 과정

에서 주민 의견이 철저히 묵살되고 반대 서명 500여명이 은폐된 사실을 지적했다.

또 2차 주민설명회 당시 참석자 38명이 모두 소각장 증설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이뤄졌고 동양환경은 증설 공사를 하지 않은 채 이를 허가 근거로 소각장 허가 전환을 추진했다.

참석자들은 “군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행정이 주민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청계의 생존권과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기자

진도군, 국내 첫 AI 결합 특산물 판매 개시

세계 소비자 대상 24시간 비대면
농어가 판로 확보·매출 증대 기대

진도군이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결합한 특산물 판매에 나섰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주)스마트알뜰살뜰터는 지역 통합상표인 ‘진도이츠(Jindo eats)’를 출시하고 ‘인공지능 실시간 생방송 판매(AI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진도 농수산물물 24시간 판매한다.

또 물류거점센터(MFC)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디지털 물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진도이츠(Jindo eats) 네이비스토어’와 ‘인공지능 실시간 생방송 판매(AI 라이브커머스)’를 연계해 국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비대면

판매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진도군의 농어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매출을 증대하고 진도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릴 예정이다.

물류거점센터(MFC) 기반의 유통물류 운영 체계는 생산부터 가공, 유통, 물류, 정산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통합형 시스템’이다.

반응형 인공지능 실시간 생방송 판매 구조는 진도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방식이며, 인공지능 판매자(AI 쇼호스트)가 2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질문에 대해 답변(Q&A)하는 등 국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홍보하는 혁신적인 방식이다.

특히 이번엔 선보이는 인공지능 판매자(AI 쇼호스트)는 진도의 정감 있는 사투리를 사용하도록 개발해 진도만의 특색을 부각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월 3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상생의 성공적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기자

목포시, 오는 15일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목포시는 30일 “다음 달 15일까지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와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적용대상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

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는 모두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감면 신청은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추후 정상화 이후 감면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면 가산세 없이 본세만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애란 목포시 세정과장은 “문제가 필요할 경우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또는 목포시 세정과(061-270-3481)로 연락하면 된다”며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지방세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인명피해 예방’ 완도군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

13억 투입·비용 80% 지원

완도군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구명조끼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30일 완도군에 따르면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비해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 품목은 착용 편의성이 높은 목도리형과 허리 벨트형 팽창식 구명조끼이며 출입항 신고 최대 승선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승선 인원 1명이면 최대 2벌까지 신청 가능하다. 해당 사업에는 총 13억5천만원이 투입되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8천여 척의 어선이며 이달 22일 기준 약 58.2%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신청은 어선안전조업국, 수협,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분증만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지정 계좌에 납부하면 수협을 통해 구명조끼가 지급된다.

모집은 1차로 10월까지 진행되며, 예산이 남을 경우 11월부터 12월까지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 장비”라며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영광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확장 이전

영광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모두의 놀이터)이 옛 읍사무소에서 청년육아나눔터 4층으로 확장 이전했다.

이전을 기념해 열린 간담회에는 이계호 국회의원원과 전남도의원, 전남다함께돌봄협의체 관계자, 전남 다함께센터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사진〉

장순안 돌봄센터장은 30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아동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소통·교육 공간...‘함평농업인회관’ 준공

회의실·편의 시설 등 갖춰
컨설팅·워크숍·연수 추진도

함평군이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농촌 공동체 강화를 위해 농업인회관을 마련했다.

30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함평자동차극장에서 열린 ‘함평천지 농촌미래기반 통합 출범식’에서 농업인회관 준공을 공식 발표했다. 〈사진〉 농업인회관은 지역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을 받고 정보를 교류하며 휴식할 수 있는 종합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 예정이다.

특히 최신 교육시설과 회의실, 편의 공간 등

을 갖춰 여성과 청년농업인 등 다양한 농업 단체 활동의 중심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농촌 지역 사회 내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맞춰 군은 농업인 역량 강화, 세대 간 지식 전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농업인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과 혁신적 시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와 유통 전문화를 통해 함평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함평=김연수기자